

[자료1]

근대계몽기 교과서를 통해 본 장지연의 '근대/민족'관(觀)과 여성교육

1. 서론

근대와 여성, 교육은 어떻게 길항하고 공명해 왔는가. 본고에서는 근대계몽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사상가였던 장지연의 '교과서'에 주목하여 그가 여성 교육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그가 상상한 여성상이 그의 사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근대식 교과서와 교육, 유교 사상과 신학문의 관계, 근대 초기 여성 교육에 대한 설계와 구상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근대계몽기 지식인은 오직 '장지연' 뿐이다.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기였던 1905년에서 1910년 사이 장지연 관련 기사 및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가 관여하여 편찬, 교열한 교과서가 다수 확인된다. 가장 많은 자료가 발행된 1907년을 기준으로 현재 확인되는 것만 『몽학한문초해』, 『중등만국신지』, 『대한신지』, 『고등소학독본』, 『신정동국역사』, 『녀주독본』 총 6권이다.¹⁾ 그 전후로 시기를 넓혀보면 『동국역사』(1906), 『신정중등만국신지』(1907), 『신찬초등역사』(1910)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906년 <대한매일신보> 기사를 보면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에서 학부(學部)에서 새롭게 펴낸 교과서에 대해 편집 여하와 실시 여부를 질문하기 위해 윤효정, 장지연, 김상범을 파견했다는 내용이 있다.²⁾ 그만큼 장지연은 근대계몽기 교육의 최첨단에서 이를 주도하고 그 담론을 만들어 나가던 핵심적 인물이다.

장지연은 또한 근대계몽기 '여성 교육'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라 말할 수 있다. 그는 이 시기 『녀주독본』(1907), 『익국부인전』(1907), <가명잡지>(1908) 등을 통해 여성만을 위한 '교과서'를 편찬하였고, '신소설'을 썼으며, '잡지'를 간행하는 데 동참하였다. 교과서, 잡지, 소설 등 다양한 글쓰기 방식으로 여성 계몽을 시도한 것이다. 근대계몽기에 이렇게 다방면에서 여성 교육에 주력한 지식인은 찾아보기 어렵다.³⁾

1) 1907년 2월 23일 <황성신문(皇城新聞)>을 보면 『고등소학독본』과 『신정동국역사』 출간과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다. “新訂簡便敎課書輔國 閔泳徽氏가 邇來에 敎育家로 自擔호야 徽文義塾을 特設호고 聰俊子弟를 多數 募集호야 敎務에 專心注力호은 本報에 屢揭어니와 該塾에서 張志淵 柳瑾 元泳義 諸氏가 會集호야 高等小學讀本과 新訂東國歷史를 一帙 二冊으로 新編刊出호았는디 精微簡便호야 敎課品에 甚適호다더라”

2) “大韓自強會에서 學部新編호 敎科書에 對호야 其編輯之如何와 實施之與否를 質問次로 摠代尹孝定張志淵金相範三氏를 昨日下午一時頃에 該部로 派遣호았는디 大臣李完用氏가 政府會席에 進參不在호므로 質問을 不得호았다더라”(〈대한매일신보〉, 1906.06.20.)

3) 근대 교육 및 여성 담론에 있어 장지연의 기여도는 부정할 수 없으나 1910년대 그의 '친일' 행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장지연의 1900년대와 1910년대는 구분하여 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장지연의 민족관과 사상적 배경을 토대로 본 '친일'에 대해서는 줄고(「이광수의 내선일체지향소설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와

장지연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녀자독본』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⁴⁾ 주로 여성상의 제시를 통해 본 장지연의 여성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근대계몽기 '여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근대계몽기 여성론이 여성-가족-국가의 3항 관계 속에 긴박되어 있었고, 봉건적 유교 질서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전통적 여성상을 활발히 재생산하는 와중에 근대의 새로운 여성론은 가부장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용되었음을 규명하였다.⁵⁾ 선행연구들이 또한 그의 사상적 체적, 친일 문제, 여성관의 퇴행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근대계몽기 장지연이 관여한 교육 자료 전반을 통해 그의 교육관이나 사상에 주목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맹점에 주목하여 근대계몽기 교과서를 통해 장지연의 근대/민족관을 규명하고, 그가 교육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근대적 가치와 여성 교육의 전망을 정돈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지연의 『녀자독본』에 소개된 동서양 여성상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장지연은 상/하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에서 동서양 여성상을 완전히 다른 가치 하에서 선별·배치하였다. 이를 당시 동양(여성)이 처한 한계로 단순히 이해하기에는 당시 여성 담론과의 연관성 사이에서 이 부분이 좀 더 면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주지하다시피 근대계몽기 규종의 여성들은 국권 회복의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가까스로 '구국'을 위한 '동지'로 호명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가치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것, 두 번째는 가정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배우고 있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상황에서 여성을 가정 밖으로 끌어내 가르칠 '필요'는 느끼지만, 그 가르침의 '내용'을 아직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방법론은 부재한 형편이었다. 강력한 당위성과 반비례하는 부실한 내용 사이에서 장지연은 '서양 여성의 이야기'를 『이국부인전』과 『녀자독본』 속에 들임으로써 근대 여성 교육의 새로운 '내용'과 여성 담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장지연이 교과서에 선별하여 소개한 여성 인물들의 존재와 그들이 상징하는 '가치'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근대계몽기 이후 여성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구상하였는가의 여부, 즉 근대 여성에 관한 구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지연의 교과서들을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 내포하고 있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계몽기에 소개된 서양 여성들의 이야기와 동양 여성들의 이

같은 시각에서 추후 별개의 연구를 통해 논하고자 한다.

- 4) 이를 발행 시기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강옥, 「장지연(張志淵)의 의식변화와 서사문학의 전개 (上) - 『애국부인전』·『녀자독본』·『일사유사(逸士遺事)』」, 『韓國學報』 16(3), 일지사, 1990; 「장지연의 (張志淵) 의식변화와 서사문학의 전개 (下) - 『애국부인전』·『녀자독본』·『일사유사(逸士遺事)』」, 『韓國學報』 16권 4호, 일지사, 1990; 박홍식, 「삶의 질 향상과 유교문화 - 20세기 초 한국 유교 지식인(장지연)의 여성관 변화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한국유교학회, 2008; 홍인숙, 「근대계몽기 개신 유학자들의 성 담론과 그 의의 : 개가론/열녀담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회연구』 27, 동양한문학회, 2008; 문혜윤, 「근대계몽기 여성 교과서의 열녀전(列女傳), 그리고 애국부인들 - 장지연의 『여자독본』을 중심으로」, 『泮橋語文研究』 35, 반교어문학회 2013; 정영진, 「국권상실기(1905-1910) 여성의 국민화와 남녀동권 인식 - 여자용 교과서 『여자독본』과 여성가사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이정민, 「장지연의 『여자독본』, 그 성격과 지향: 새로운 여성상의 제시」, 『韓國思想史學』 63, 한국사상학회, 2019; 윤영실, 「1910년 전후 여성서사의 '비혼녀'와 '미친 여자들' - 장지연과 이인직의 여성-국민담론과 식민화 이후의 변화들」, 『사이(SAI)』 29, 국제한문문화학회, 2020; 김경남, 「장지연의 『녀자독본』·『일사유사(逸士遺事)』를 통해 본 근대 지식과 여성 인물 발굴의 의미」 85, 『語文論集』, 중앙어문학회, 2021.
- 5) 윤영실, 앞의 글, 2쪽.

이야기 사이에는 어떤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독본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를 읽고 따라 쓸 때 여성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학습하게 되는가. 셋째, 본질적으로 근대계몽기 여성교육이 '진보'라는 말과 함께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장지연과 근대계몽기 독본류(讀本類) 교과서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장지연의 사상적 배경, 그가 편찬 및 관여한 교과서들에 반영되었던 그의 '근대' 의식과 '교육관'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장지연의 교과서 편찬 활동의 의의를 밝힐 것이다. 3장에서는 '연설가'로 등장한 장지연의 '잔 다르크' 이야기, 『익국부인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⁶⁾ 이 작품은 근대계몽기 본받을 만한 여성 모델로써 당시 장지연의 민족의식과 여성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중요한 배경지식이 되어줄 것이다. 4장에서는 『녀주독본』 속 동서양 여성상의 괴리와 그 의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리하여 그의 사상적 배경이 근대계몽기 여성에 대한 상상력을 어디까지 확장시켰고 또한 제한하였는지 규명하도록 하겠다.

2. 장지연과 근대계몽기 교과서의 의의

장지연이 처음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한 시기는 그의 나이 21세였던 1884년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의제(衣制) 개혁을 둘러싼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이 있었는데, 이때 장지연은 장효제를 대신해 의제 개혁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지음으로써 사회운동을 시작했다. 상소문에서 장지연은 “무릇 의복제도는 성왕께서 문장으로 귀천을 표하고자 한 것입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전통적·수구적 유학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그럼에도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1897년의 일이었다. 아관에 있던 고종에게 환궁을 청하는 상소문 「만인소(萬人疏)」와 고종이 황제에 오른 뒤 미비한 황제의 의식을 보완할 것을 요청한 상소문 「군신청진위황제소(群臣請進位皇帝疏)」가 그것이다.⁷⁾ 장지연은 실학적 기반에서 한말의 급변하는 정세를 파악해 나가면서 유교의 본뜻을 '수시찰변'이라는 어구로 요약했다. 세상의 변화를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유교의 본지(本旨)라는 것이었다.⁸⁾ 그러나 그는 점차 전통적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멀어지면서 서양 근대의 실용 학문에 큰 가치를 두기 시작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신학문' 수용으로 이어졌다.

우리 동양은 문자가 창조된 이래로 문명의 발달이 가장 오래되어 5,000여년 동안 개화진보가 극에 달했다. 그러나 문물이란 오래되면 썩고, 썩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이른바 철학·이학·문학·정치학이 날로 천박해져서 거짓으로 왕성하면서 진부함이 서로 말미암은즉 우리 동양은 이른바 구학인 것이다. 소위 신학이라는 것은 서양근대의 과학이 이것이니,

6) 『익국부인전』과 『녀주독본』은 순한글로 쓰였다. 장지연은 교육을 발달시키고 독립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오직 '국문'을 확정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장지연, 「국문관계론」, 『위암문고』6, 국사편찬위원회, 1956.) 그가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하는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서 이 두 권의 책을 국문교과서로서 간행”(이강욱, 앞의 논문, 230쪽.)했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에 동의하며 본고에서는 『익국부인전』 또한 교과서의 일종으로 다루었다.

7) 보수적 유학사상과 개화사상이 혼재되어 있었던 당시 장지연의 사상은 구자혁의 『장지연』(동아일보사, 1993)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서술은 이 책의 17쪽에서 30쪽까지를 참조하였다.

8) 위의 책, 44-45쪽 참조.

즉 이화(理化)·공예·광무(鑛務)·농상·기계 등 실지로 응용하는 학문이다.⁹⁾

그렇게 1900년대 초 장지연은 구국과 자주독립을 위한 '자강사상가'로 변모하면서, 1905년 을사늑약을 맞아 「시일야방성대곡」을 쓰게 된다. 이 시기 장지연은 특히 국문, 국사, 지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일제에 대항해 투쟁하기 위해서는 민족정신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지연의 국문 교육의 실천은 순 한글로 펴낸 신소설 『이국부인전』과 교과서 『녀즈독본』을 통해서, 국사와 지리 교육의 실천은 『신정동국역사』(1906), 『신정중등만국신지』(1907), 『대한신지』(1907) 등을 통해서 구현되었다.¹⁰⁾

『신정동국역사』 서문에서 장지연은 역사는 정치와 학문의 기초라 말하며, 교육의 종지는 그 근본이 국민을 계도하는 데 있으므로 교육에서는 본국사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始必授以己國之史喚起祖國之精神鼓發同族之感念以培養其愛國之血性以鞏固其發展之”¹¹⁾라는 문장을 통해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 조국의 기상을 고양하고 동족의 감념을 고발함으로써 애국의 혈성을 배양하고 발전의 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국운동의 목표와 역사교육의 필요성이 만나는 지점이다. 『신정중등만국신지』에서는 모든 국가의 새로운 땅을 열망하는 사람은 먼저 자국의 지리에 익숙해지고 단계적으로 5개 대륙의 국가와 지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리와 역사는 외부인 동시에 내부인 것이므로 이에 주목해야 한다(“以故地理學與歷史相爲表裏·學問之所不得不講究者也”¹²⁾)고 주장했다. 『대한신지』 서문에서는 “嗚呼編者苦心惟將四千年祖國精神，注此一部地志之中，以餉我全國之同胞是不特資蒙學之講習，亦以貢有志愛國士之几案也云爾”¹³⁾라는 문장을 통해서 4천 년의 조국 정신을 이 한 부의 지리지에 담아 어린 학생들의 공부는 물론 애국유지자의 책상에 비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썼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있어 근대계몽기 역사와 지리 교과서 편찬은 민족적·국가적 차원의 구국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다.

그 밖에도 그가 이 시기 중점을 두었던 것은 바로 여성 교육 분야였다. 장지연은 『녀즈독본』과 『이국부인전』을 펴냈는데 두 책의 공통점은 장지연이 자신의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동서양 여성 인물들을 소개하는 열전(列傳)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녀즈독본』 제1장 총론에 장지연은 여기에서 “녀즈는 나라 백성(百姓)된자의 어머니될 사람이라 녀즈의 교육(教育)이 발달(發達)된 후에 그 즈너로하여곰 착훈 사람을 일울지라 그런고로녀즈를 그 립침이 곳 가정교육을 발달하야 국민(國民)의 지식(智識)을 인도(引導)하느 모범(模範)이 되느니라”¹⁴⁾고 썼다. 즉, 이 책의 편찬 의도는 여성을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곧 가정교육을

9) 장지연, 「기창수록」, 『위암문고』, 국사편찬위원회, 1971.

10) 근대계몽기 장지연이 관여한 사찬교과서로는 직접 확인한 것만 『고등소학독본』(1906), 『신정동국역사』(1906), 『대한신지』(1907), 『신정중등만국신지』(1907), 『몽학학문초계』(1907), 『녀즈독본』(1908)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가 서문을 통해 편찬 의도와 목적 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텍스트만을 선별하여 다루었다. 이 시기 그는 교과서의 중요성과 개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범학교 교원과 민간인 중에서 학문 박통한 사람에게 교과서를 편찬케 하고 문부성에서 채택하여 정하게 하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학계의 협조를 받아 미흡한 점을 보완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각 학회와 연락하여 교과서 심사위원을 나누어 정해 완전·균일한 교과서를 편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술한 교과서 외에도 다수의 교육교재를 개발하였고, 1906년 휘문의숙장에 취임함으로써 교육자로도 활동하였다.(구자혁, 앞의 책, 129-131쪽 참조.)

11) 장지연, 「序」, 『신정동국역사』, 휘문의숙인쇄부, 1906, 2쪽.

12) 장지연, 「新訂中等萬國新地志序」, 『신정중등만국신지』, 광학서관, 1907, 5쪽.

13) 장지연, 「大韓新地志序」, 『대한신지』, 휘문관, 1907, 4쪽.

발달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지식을 인도하므로,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잘 교육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렇기에 근대계몽기 장지연에게 있어 가장 중요성 계몽 대상은 '부인'들이며, 이는 결코 혼도 하지 않았던 성처녀 잔 다르크의 전기소설에 애국 '부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장지연의 사상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장지연의 자강교육론을 민족정신과 애국심 함양을 위한 민족교육과 자강을 이룩하기 위한 근대교육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민족교육 측면에서는 국문·국사·지리 등 국학에 대한 가치가 강조되었고, 근대교육 측면에서는 의무교육·여성교육·신학문 교육의 실시가 강조되었다. 유교적 전통과 역사, 진보적 의제와 신학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근대계몽기 장지연의 교과서는 그 자체로 구국(救國)을 위한 민족운동이었으며, 급변하는 세태 속에서 충돌하는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의 산물이었다.

3. 구국 여성 영웅에 대한 염원 : 『이국부인전』

광학서포에서 1907년 10월 3일 발행된 『이국부인전』은 숭양산인¹⁵⁾이라는 장지연의 필명으로 간행되었다. 판권지를 통해 발행자 김상만의 이름과 일한도서인쇄주식회사의 인쇄, 김상만책사가 발행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총 10회로 구성된 39쪽짜리 얇은 단행본이다. '애국성이 있는 동포라면 마땅히 보아야 한다'¹⁶⁾고 광고한 이 책에서 잔 다르크는 '약안아이격' 또는 '정덕'이라 불리는 19살의 여성으로 설정되었다. 장지연이 묘사한 그의 인물됨을 보면 "용모가 단아하고 턱선이 총명하여 영민함이 비할데 업"¹⁷⁾는 인물이고, 남자였다면 나라에 큰일을 했을 것이라는 주변인들의 안타까움에 어찌 남자만 나라를 위해 사업하도록 하늘이 냈겠느냐며 남녀가 평등하다고 외치는 "너장부"⁽²⁾다. 나라를 누구보다 걱정하여 "날마다 상에게 가만이 축원하기를 장리 나라를 위하여 원슈를 설치하고 빅성을 구제하게 하옵소서 하여 칠팔년을 일심으로 비는"⁽³⁾ 애국심 강한 인물이기도 하다. 잔 다르크의 이야기가 기초가 되었으므로 소설은 전형적인 영웅서사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다. 신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인물이 주변의 반대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의지로 대의를 위해 싸

14) 장지연, 『녀즈독본』上, 광학서포, 1908, 3쪽.

15) 장지연의 필명. 위암, 남송산인을 쓰기도 했다. 남송산은 지금의 금오산(金烏山)이다. 『신중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금오산은 고려 때에 남송산으로 불려 해주(海州)의 북송산과 짝을 지었다고 한다. 숭양산(崇陽山)은 남송산 줄기에 서 뻗어 나온 산으로 최고봉이 효자봉이다. 장지연은 1888년 아버지 유해를 금오산 효자봉에 안치한 바 있다.

16) 1907년부터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는 동일한 내용의 광고가 국한문 혼용과 순한글로 등장했다. 장지연의 신소설 『이국부인전』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 확인되는 최초의 기사는 1907년 10월 8일이며 이듬해인 1908년 5월 7일자까지의 신문지상에서 동일한 광고를 확인할 수 있다. 최소 8개월 이상 이 책을 홍보한 셈이다. 다음은 광고 문구이다. "신소설 이국부인전 미척당가금심오전 신선호 도본도 구비함 우척은 순국문으로 세계에 유명함 법국부인 약안씨의 수적을 번역하였스오니 무론 남녀하고 이국성이 유한 동포는 맛당이 보실 서책이오니 륝속구람하시옵소서"(<대한매일신보>, 1907.10.18.); "愛國婦人傳 新小説愛國婦人傳 一冊定價金十五錢 新鮮 圖本도 具備함 右冊은 純國文으로 世界에 有名한 法國婦人若安氏의 事蹟을 譯出한 여사오니 無論男女하고 愛國性이 有한 同胞는 맛당이보실 書冊이오니 陸續購覽하심을 望함"(<황성신문>, 1908.02.18.)

17) 숭양산인, 『이국부인전』, 광학서포, 1917.10.03, 1쪽. 이후 이 작품의 인용시 각주의 수를 줄이기 위해 본문에 괄호로 페이지를 표기하였다. 또한 원문을 그대로 쓰되 가독성을 위해 현대떡어쓰기로 수정하였다.

위 과업을 완수하지만 결국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는 이야기.¹⁸⁾ 그러나 전형적 구조 속에서 장지연이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과 인물형을 살펴보면 이 작품만의 의의와 의도가 드러나게 된다.

영국군을 피해 깊은 산속 절로 들어간 약안은 간절한 기도 끝에 '상제'를 만나는 신비한 경험을 한다. 상제는 약안에게 나라를 구원하라 명하고, "너는 근심치말라 이 다음 즈연 날이 있을 것이니 그 썩 되거던 라비로 장군의 휘하로 들어가면 조흔 기회가 싱기리라"(3) 하고 사라진다. 약안의 '정성'과 '애국정신'에 감복하여 천신이 나타난 것이다. 여자의 몸으로 총과 활을 배우고 말을 타는 등 '문무재주'를 익히는 약안을 두고 동네사람들은 "밋친 녀즈"(4)라 하고 부모는 만류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¹⁹⁾ 약안은 이후 손쉽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 "렐스의 풍신이 족히 사람을 감동케 함"(14)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약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연설회'를 여는 대목이다. "여러분들은 독립 즈유의 인민이 되기를 원함노뇨, 그러치 안으면 천하고 렬의 업는 남의 노례가 되고자 함는가"(23)라는 말로 장지연은 당시 조선의 상황을 약안의 입을 빌려 쓴다. 모든 인민은 군사 될 의무가 있다며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약안의 연설에 사람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모두 자진하여 전장으로 나아간다. 사기는 하늘을 찌르게 된다.

장지연의 『이국부인전』은 현재까지 동일한 판본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단순한 번역·번안이 아닌 장지연이 상당 부분을 창작한 전기소설로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²⁰⁾ 다만 동아시아에 남아있는 잔 다르크 관련 판본들²¹⁾을 보면 '군술과 병법' 등 전투의 여정을 상세히 기술(Creasy, Edward Shepherd, 「紀元後一千四百二十九年若安阿亞爾格英軍ヲ阿里安二敗ル」, 『万国有名傳戰記』, 吉村軌一, 岩田茂穂 訳, 東京: 陸軍文庫, 1884.)하거나 용맹무쌍한 용위를 떨친 전사로서의 여장부의 면모가 강조(新宮巍 校閱, 『自由の新花: 仏國女傑 如安実伝』, 朝

18) 본 논문은 잔 다르크의 서사가 국내에 유입되고 전유된 양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당시 중국과 일본에 존재했던 다수의 판본이 『이국부인전』의 저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원본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텍스트 내부의 직접적인 비교연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 약안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과정에서 '충'과 '효'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는데, 이때 부모가 약안에게 하는 "너는 효순한 녀석이 되고 호걸 녀즈가 되지말라"(10)는 말은 인상적이다. 그럼에도 약안의 '애국심'을 꺾을 수 없기에 부모는 약안을 보내고 돌아와 통곡한다. 『이국부인전』의 이 대목에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정히 이 로인은 다만 집 보전할 뜻이 있거늘 어린 녀즈는 겁히 나라 원수 잡힐 마음을 품도다"(12)라는 말로써 '효'의 가치에 우선하는 '충'과 '애국'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10개 회(回)로 이루어진 이 책에서는 각 회의 말미에 이렇게 짙막한 서술자의 평이 붙는다. 4회의 경우에는 "정히 이 장군은 한갓 성 직할 쇠만 있거늘 녀즈는 다만 원나라 다 구할 공을 일우고자 함도다"(15)는 말로 3회와 유사하게 글을 구성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장군'을 잔 다르크와 비교하며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인 잔 다르크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20) 선행연구에서는 근대 '국가'와 '민족' 담론 속에서 이 작품이 차지하는 의미, 전근대적 텍스트들과의 연관성 등에 주목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국부인전』에 대한 선행연구를 시기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영수, 「개화기의 역사 전기문학 (1) - 장지연의 「애국부인전」을 중심으로 -」, 『관악어문연구』 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배정상, 「근대 계몽기의 매체와 담론: 위암 장지연의 「애국부인전」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박상석, 『「애국부인전」의 연설과 고소설적 요소-그 면모와 유래』, 『열상고전연구』 27, 열상고전연구회, 2008; 노연숙, 「20세기 초 동아시아 정치서사에 나타난 「애국」의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28, 한국현대문학학회, 2009; 송명진, 「역사-전기소설의 국민 여성, 그 상상된 국민의 실체 - 「애국부인전」과 「라란부인전」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6,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박인원, 「네이션 빌딩과 여성영웅의 서사 - 쉐러의 『오텔레앙의 처녀』와 장지연의 「애국부인전」, 『카프카 연구』 31, 한국카프카학회, 2014.

21) 각 판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노연숙(2009)을 참조할 것.

倉禾積 訳, 丁卯堂, 1886.1.)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작품 중간에 천사가 등장하고 모든 사명을 다한 잔 다르크의 영혼은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등(湖處子識, 「オルレアンの少女」(1893. 12~1894. 2), 『世界古今名婦鑑』, 民友社, 1898.4) 잔 다르크는 주로 '성녀'나 '전사'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림 1 『이국부인전』 대지

그림 2 「仏國如安達安克の事」(『世界智計談』) 삽화

그러나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장지연의 잔 다르크는 한 손에는 깃발을 다른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연설'을 하는 인물이다. 이 작품에는 '남복(男服)'한 군인이 아닌 '선교사'에 가까운 복장을 한 여성의 그림이 실렸는데, 실제 잔 다르크가 살았던 시기의 복식과 다르다. 한편 그림2를 보면 촌전상지(村田尚志)가 편한 「仏國如安達安克の事」(『世界智計談』, 東京: 金松堂, 1874)의 삽화를 확인할 수 있다. 잔 다르크가 장도를 휘두르며 적군을 베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이 작품은 전장에서 싸우는 '전사(戰士)'로서의 잔 다르크가 강조되어 있다.

장지연이 묘사하는 잔 다르크는 “너중 영웅이요 절세 호걸”(29)이지만 ‘예언자’이자 ‘성처녀’²²⁾라는 표상은 약화되어 있다. 소설 속에서는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말 또한 약안의 전략인 것으로 묘사된다. 종교적 계시나 구원의 측면을 배제하면서 장지연은 “황당흔 말과 신기흔 술법이 안이면 그 빅성을 고동흔지 못홀 것인고로 상대의 명령이라 텃신의 분부라 칭탁홀이요 실로 상대의 명령이 엇지잇스며 텃신의 분부가 엇지 잇스리오”(38)라는 말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해 현명한 약안이 묘안을 생각해 낸 것이라 주장한다. 그렇다면 ‘성녀’의 표상을 삭제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왔다는 것과 그것을 전략으로 활용하여 나라를 구했다는 것은, ‘의지’와 ‘자발성’의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만든다. 장지연이 원하는 것은 하늘의 계시를 받은 특별한 ‘영웅’이 아닌 평범한 사람 안에 강렬한 독립애의 열망과 혈성(血誠)이 피어나는 것이다. 특별하지 않은 자라도 누구든 지략과 의지로 애국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남자보다 강한 완력이나 전투력을 드러내거나 여성의 순결과 ‘처녀’의 의의를 강조하지 않고 이를 ‘애국/부인’이라는 개념 안에 묶으로써 장지연은 절대다수의 여성을 모두 구국 영웅의 자

22) 실제 당시 잔 다르크에 대한 기록에서 그를 설명하는 가장 중대한 가치와 개념은 ‘성처녀’다. “당시 처녀란 악마의 침입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관념이 지배했”(42-43)기 때문이다. 잔 다르크는 또한 순결한 예언자이자, “한 번도 사랑을 죽인 적은 없”(113) 인물이기도 했다.(헤르베르트 네테, 이은희 역, 『잔 다르크』, 한길사, 1998.)

리에 두고자 했다.

4. ‘내조지공(內助之功)’과 ‘애국지성(愛國之誠)’의 가치 : 『녀즈독본』

1908년 4월 23일자 <황성신문>에는 다음의 광고가 실렸다.

女子讀本녀즈독본

韋菴先生張志淵氏 著 女子讀本녀즈독본 一秩二冊 二百七十頁 定價金 六十錢我韓女學의 不講이 久矣라 雖上等婦人이라도 知識이 虛誕한 諺冊에 不過한디니 挽近以來로 文明에 有意한야 女子 學校가 在在發起한나 完全한 教科書가 無한야 識者의 慨歎한바라 故로 此書二卷은 女子의 知識開發하기 爲한야 纂輯한것인디 國文으로 純用하고 漢文으로 旁註한야 上卷은 本國故代有 名한 婦人의 歷史요 下卷은 東西各國有名한 婦人의 歷史이오니 有志 兪君子는 速速來購한시옵 發賣元皇城中署布屏廣學書舖金相萬 發賣所 京鄉各有名書舖 平壤鍾路耶蘇教冊肆 法橋大同書觀

여성의 지식개발을 뜻하고 있지만 완전한 교과서가 없어 이를 개탄하여 지었다는 교과서, 바로 『녀즈독본』에 대한 것이다. 1908년 4월 5일 광학서포에서 남송산인(南崇山人) 장지연의 이름으로 발행한 이 책은 상/하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전(列傳) 형식의 교과서로 상권에서는 한국의 여성을, 하권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여성에 대해 다룬다. 상권에서 그는 총 40명의 조선 여성에 대해 다루면서 엄하고 지덕(知德) 있고 선한 어머니, 헌신하는 아내, 절개를 지킨 여성 등 주로 ‘내조지공(內助之功)’의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소개했다. 전체 구성과 분량 등 책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다.

<표 1> 『녀즈독본』 上권의 구성

2장 母道	3	김유신 모친		34	도미 처	
	4			35		
	5			정일두 모친	36	설시
	6			리오성의 모친	37	
	7			리룰곡의 모친	38	령산 신시
	8	홍학곡의 모친		39		
	9			40	안동 김시	
	10	김유신 부인		41		
	11			42	군위 셔시	
	3장 婦德	12		소나 처	43	정부인
13		온달 처		44		
14				45	권교리부인	
15				46	윤부인	
16				47	림의부	
17				48	송렬부	
18				49		
19		유응규 처		50	김열부	
20		인렬왕후		51		
21		윤부인		52	박효랑형제	
22		리부인	5장 잡편	53	의기론기	

	23	김부인		54	계화월
	24	리부인		55	금섬이향
	25			56	야은비석기
	26			57	약가
	27	권부인		58	향랑
	28			59	
	29	장부인		60	목죽곡
4장 貞烈	30	석우로 처	61	희소곡	
	31		62	무녀 일금	
	32	박데상 처	63	허란설현	
	33		64		

분량상으로 보았을 때 가장 강조된 부분은 여성의 굳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4장 정열(貞烈), 인물로 보았을 때 가장 집중 조명된 이는 무려 6과에 걸쳐 소개된 ‘온달 처’라고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에는 평강이 궁에서 가지고 나온 자신의 패물로 완전한 가산(家産)을 이루고 온달을 장수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부분이 상세히 쓰여 부녀자의 희생과 헌신이 강조된다. 온달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기술하면서 장지연은 마지막 대목에 “공쥬 | 궁중에 있는 녀즈로서 능(能)히 온달이 영결(英傑)인줄 알고 맞춤내 일흠이 천고(千古)에 빛느니 진실노 녀즈의 본밭을만 흐도다”²³⁾라고 썼다.

장지연은 상권의 2장에서 지덕 있는 어머니, 선한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이런 어머니에게 가정교육을 받아 아들이 일국의 명현이 되었다거나 훌륭한 인물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3장에서는 내조에 헌신하는 처, 소학과 내척 등을 읽고 공부한 현명한 처, 자식 농사에 성공한 여성을 소개함으로써 진정으로 여성을 빛내는 것은 사치하여 외양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남자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4장에서는 나라를 욕보인 자에게 복수하는 여성, 남편의 뒤를 따라 죽는 여성,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여성, 남편을 구하기 위해 호랑이와도 싸우는 용감한 여성들을 소개했다.²⁴⁾ 마지막으로 잡편에서 그는 몸바쳐 일본인 장수를 죽인 기생, 순절한 남성의 첩, 지아비의 뜻을 따른 비복, 병사의 처 등 기생이거나 첩, 무녀 등 신분이 낮거나 부녀자라 칭할 수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묶어 소개했다.²⁵⁾ 이때 허난설현은 총명하고 비범한 여성임에도 아들(母道)이나 남편(婦德/貞烈) 즉 남성을 위한 여성이 아니었기에 이 책의 구성상 다른 장에 포함되지 못하고 ‘잡편’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잔 다르크의 전기를 소설로 쓰면서도 조선 여성 사이에서 예외적인 이 인물

23) 장지연, 『녀즈독본』上, 광학서포, 1908, 33쪽. 이후 이 책을 인용할 때는 각주의 수를 줄이기 위해 본문의 괄호 안에 (上/下-쪽)으로 표기하겠다.

24) 여성의 이름은 역사에 남지 않았기에 『녀즈독본』의 여성들은 ○부인, ○씨, ○의부(義婦), ○열부(烈婦)로 지칭된다. 여기 실린 ‘연이’와 ‘옥배’는 효자·충신·열녀(烈女)나 나라에 큰 공이 있는 사람에게 정문(旌門:홍문(紅門))을 지어 주어 포상(褒賞)하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속하며, 그로 인해 『녀즈독본』에도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 4장에 등장하는 여성인물 가운데 독특한 인물은 송열부와 김열부로 의문을 죽음을 맞이한 남편의 역울함을 풀기 위해 홀로 남복(男服)하고 증거를 찾아 관청에 고발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25) 이 잡편에서 ‘허난설현(許蘭雪軒)’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녀는 왜 잡편에 실린 것일까. 아무개의 부인, 아무개의 딸, 아무개의 어머니보다 자신의 이름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남성에 대한 보조적, 부수적 역할이 아닌 주체적 인물로 유일한 이를 장지연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던 듯하다. “우리 나라의 지고로 부인 녀즈중에 총명지예(聰明才藝)가 잇서 문장(文章)의 민첩(敏捷)함이 조다가(曹大家) 황송가(黃崇嘏)와 곱흔 녀스(女士)가 만흐니”(117)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이 글은 허난설현이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에 의해 조선의 뛰어난 문사로 인정받은 이야기가 짧게 전개되다가 그 밖에도 문장으로 후세에 전하는 자로 빙호당(氷壺堂), 황진(黃眞), 리계성(李桂生) 등의 기생, 소설 등등이 있다는 서술로 마무리된다.

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던 장지연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장지연은 하권에서 세계의 본받을 여성에 대해 다루는데 상권과는 완전히 다른 구성,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

<표 2> 『너즈독본』 下권의 구성

1	링모	중국	29	마리타 ²⁶⁾	이탈리아
2			30		
3			31		
4	방아가녀	중국	32	로이미셰아 ²⁷⁾	프랑스
5	리그	중국	33		
6			34	여안 ²⁸⁾	프랑스
7	목란	중국	35		
8			36		
9			37	라란부인 ²⁹⁾	프랑스
10	순관	중국	38		
11	부인성	중국	39		
12	량부인	중국	40	루지 ³⁰⁾	영국
13			41		
14	안공인	중국	42	부란지스 ³¹⁾	미국
15	세부인	고량	43		
16			44		
17	진량옥	중국	45	류이셜 ³²⁾	프로이센
18	양향과 동팔나	중국	46		
19			47	비다 ³³⁾	미국
20	적량공이모	중국	48		
21			49	남당격이 ³⁴⁾	이탈리아
22			50		
23	반쇼	중국	51		
24	황송가	중국	52	남당격이 ³⁴⁾	이탈리아
25	위부인	중국	53		
26	사로탈 ³⁵⁾	프랑스	54		
27			55		
28			56		

<표 1>과 달리 <표 2>에서는 장지연이 기술한 대로 인물들의 국적을 추가로 표시했다. 가장 많은 분량으로 서술된 인물을 꼽자면 5과에 걸쳐 소개된 남당격이, 4개 과에 걸쳐 소개된 부란지스, 여안을 들 수 있다. 일단 동양, 즉 중국의 여성들을 살펴보자. 맹모(孟母)를 통해 역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인물들은 ‘전

26) ○의 어머니, ○의 부인으로 남은 동양 여성들과 달리 서양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었으므로 각주를 통해 그들의 정확한 이름과 생몰년을 밝혀졌다. 안나 마리아 리베이루 다실바(Anna Maria Ribeiro dailva=아니타 Anita, 이탈리아)

27) 루이즈 클레망스 미셸(Louise Clémence Michel, 1830~1905)

28) 잔 다르크(Jeanne d'Arc, 1412~1431)

29) 롤랑 부인(Madame Roland, 1754~1793)

30) 루시 허친슨(Lucy Hutchinson, 1620~1681)

31) 프란시스 윌라드(Frances Willard, 1839~1898)

32) 루이제 아우구스타 빌헬미네 아말리(Luise Auguste Wilhelmine Amalie, 1776~1810)

33) 해리엇 비처 스토(Harriet Beecher Stowe, 1811~1896)

34) 플로렌스 나이팅게일(Florence Nightingale, 1820~1910)

35) 샤를로트 코르데(Challotte Corday, 1768~1793)

쟁에 나가 나라를 구한 여성들'이다. 같은 동양의 여성일지라도 중국 여성의 경우 송나라와 진나라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용맹하게 나선 인물들(목란, 부인성, 량부인, 안공인)을 소개했다. 그 밖에도 지혜를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구한 여성, 부모를 구하기 위해 맹수를 물리친 소녀들의 이야기처럼 국가와 마을과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여성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서양 여성의 경우는 어떠한가.

26과에서 처음 법국(法國, 프랑스) 여성인 사로탈(沙魯脫)이 등장하면서 서양 여성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소개된다. 프랑스대혁명 당시 자코뱅의 지도자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장폴 마라(Jean-Paul Marat, 1743~1793)를 죽인 인물이다. 장지연은 이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술하였으며 “약혼 여자가 능히 몸을 바쳐 국사(國事)를 다하니 죽어도 눈을 감겠다하더라”(下-70)와 같은 표현으로 특히 샤를로트가 사망 당시 보인 용감하고 당당한 태도를 강조하여 썼다. 바로 다음 소개된 인물 마리타(馬利他) 또한 마찬가지다. 이탈리아 혁명 당시 해전에 직접 참여한 여성 병사 마리타는 용맹한 병사였음은 물론이고 전장에서 아들을 낳고 기른 강인한 어머니였다. 이탈리아의 장군 가리발디의 연인이자 동지이기도 했던 마리타는 전장에서 사망했는데 장지연은 가리발디(책에서는 가리타)의 말을 빌려 “마리타의 용맹과 굳셈”(下-77)을 강조했다. 로이미세오(路易美世兒)에 대해 서술할 때도 강조된 점은 “스스로 병복(兵服)을 입고 총을 메며 칼을 찌고 맞춤내 아인을 막아”(下-81)선 용맹한 모습이다. 여안(如安), 잔 다르크에 대해서는 특히 나라를 사랑하는 대의를 알고 나라 구원하기를 원하던 영웅적 인물로 의미화했다.

장지연은 서양 여성에 대해 서술할 때도 부모가 “교육에 주의(注意)하”(下-102)였다, “부모가 교육을 맞하”(下-106)와 같은 표현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의미화하지만 잔 다르크는 문맹이었고, 아니타 또한 교육을 많이 받은 인물은 아닌 만큼 동양 여성에 대해 서술할 때처럼 중요한 기준으로 두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미국의 유명 교육자인 프란시스 윌라드, ‘부란지사’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을 보면 “부란이 일찍이 사를을 중국(中國)에 보내었더니 중국은 네로 좇차 이러흔 말을 듯지 못하야 능히 끼듯지 못하느고로 전지구(全地球)의 풍속과 인심이 다 부인의 손에 올마스되 아췌(亞洲)의 대륙(大陸)은 오히려 침침(沉沉)흔 밤과 갓흐니 부인들의 어리석고 어두움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리오하더라”(下-113)는 대목이 있다. 이는 선진교육에 대한 동양의 폐쇄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이를 여성들의 어리석고 어두움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장지연은 동양의 폐착은 폐쇄성에 있고, 결국 여성들에게 교육과 계몽의 기회가 부재하였던 것이 오늘날 조선과 서양의 운명을 갈라놓았다고 봤던 것이다.

『녀즈독본』의 하권은 톨랑부인, 루이제 아우구스타 빌헬미네 아말리, 해리엇 비처 스토퍼럼 정치적인 활동을 한 인물들, 또는 전장에 직접 참여한 군인이자 애국지사들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룬다. 그런 의미에서 동서양 여성 인물에 대한 평가 기준 및 시각은 일관적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지연에게서 엿보이는 동서양 여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 인물들에게서 강조된 공통된 자질이자 미덕인 이타적, 봉사적, 희생적 면모다. 『녀즈독본』에 소개된 이 많은 여성 중 누구도 자기 자신의 입신양명이나 소망을 위해 살지 않았다.³⁶⁾ 아들과 남편과 가정을 넘어서 ‘애국지성’의 가치를 상징하고,

상대적으로 진취적인 듯 보이는 외국 여성들 또한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구원하기 위한 존재라는 점에서 조선의 여성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것이 장지연이 상상한 근대계몽기 '부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자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근대계몽기의 언론인, 사학자, 지리학자였던 장지연의 여러 정체성 가운데 여성 교육을 위한 '교과서 편찬자'로서의 장지연에 주목해 보았다. 근대식 교육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에서 근대계몽기 지식인들이 어떠한 '근대'를 상상했고 어떠한 '여성'을 구상했는가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대상은 바로 교과서이고, 교과서란 전범(典範)만을 모아두는 이상적 텍스트라는 점에서 바로 그 시기 지식인의 이상이 총망라되고 집약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장지연이 열전 형태의 교과서를 쓰면서, 여러 본받을 여성 인물들을 전시한 것은 구국적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는 그의 자강적 민족주의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대한자강회의 대표를 맡아 자강회의 운동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열성을 다했던 인물이다.³⁷⁾ 국가 의식의 결여를 지적하며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던 그의 의도는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교과서 편찬과 함께 나타났다. 한편 동양의 여성 인물 대다수가 깨끗한 절개와 지조가 강조된 전근대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이들인 것은 그가 유교 변법론³⁸⁾에 사상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개혁성 자체가 과격하지 않았고, 변혁을 뜻한 부분 또한 법률이나 제도 같은 구체적인 부분이었다. 결국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는 불변적 유교관에 기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여성의 길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라는 부도(婦道), 모도(母道)에 근간을 둘 수밖에 없었다.

일찍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홍인숙은 이 시기 신문들에서 고르게 발견되곤 하는 '잡보'란의 '열녀담'이 근대계몽기의 개가(改嫁)론과 함께 계몽 담론의 자기모순과 착종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말한다. 빈번한 횡수로 등장하고 있는 열녀 이야기는 당대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윤리 감각에 훨씬 가까웠던 것이 아직은 개가론이 아니라 열녀담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³⁹⁾ 근대계몽기 유교 지식인들의 성 담론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일정한 조응 관계에 있으나 근대국가 기획에 여성의 역할과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진보적 지식인이라도 성관념적 측면에서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장지연이 1909년 이후 더욱 열녀담에 집중하고, 1922년 『일사유사』를 펴낸 것을 두고 선행연구들에서 그의 성 담론이 '보수 회귀'한다고 평

36) 그런 의미에서 '잡편'에 배치된 '허난설헌'은 그 자체로 의의를 지닌다.

37) 유영열, 「대한자강회의 애국계몽운동」, 『한국 근대 민족주의 운동사 연구』, 일조각, 1987 참조.

38) 장지연의 변법 개혁에는 항상 유교의 사고가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 견해는 그가 신학문을 긍정하면서도 그것 또한 유교를 바탕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로 이어졌다. '오륜 같은 도덕'은 고금을 가리지 않고 시행되어야 할 불변의 성격을 지닌 데 견주어, 예절, 음악, 법률, 제도 등은 시대 환경에 맞도록 변경하게 되는 성격이라 보았다. 이는 박은식과 마찬가지로 신구를 조화하고 절충하는 식의 '온건'한 개혁설의 배경이 되었다.(윤사순, 『한국유학사 下-한국유학의 특수성 탐구』, 지식산업사, 2012, 333-334쪽 참조.)

39) 홍인숙, 앞의 글, 421쪽 참조.

하지만 이는 그가 천일로 전환하게 된 과정⁴⁰⁾과 무관하지 않고 적어도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그의 구상에서 성 담론은 일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근대계몽기 장지연과 그의 교과서를 살펴보는 일은 단순히 한 남성 지식인의 여성관을 정리하는 일을 넘어 근현대 여성 문학과 교육의 저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지연은 '운동가'이자 근대계몽기 여성/교육을 상징하는 지식인이고 그가 간행한 다수의 교과서를 읽고, 배우고, 영향을 받으며 근현대 여성들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글 쓰는 여자'와 '싸우는 여자'의 탄생은 근대계몽기 최초의 가르침과 무관하지 않다. 타인을 위해 존재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는 가르침은 여성을 본질적으로 부속(附屬), 부수(附隨), 보조(補助)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지만, 1910년 이후 식민 지배하에서 한국 여성/교육이 처하게 된 절망적인 상황을 상기하여 보면 근대계몽기 짧았던 여성/교육에 대한 기대와 상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40) 이에 대해서는 1990년 일지사에서 나온 이강옥의 「장지연의 (張志淵) 의식변화와 서사문학의 전개 - 『애국부인전』·『여자독본』·『일사유사(逸事遺事)』, 『韓國學報』 16권 3호와 4호를 참조할 것.

[자료2]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 여성 교육 이데올로기의 변모양상 연구

— 『녀즈독본(女子讀本)』(1908)과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中等教育女子朝鮮語讀本)』(1936)을 중심으로

I. 서론

이 글의 목적은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 여성 대상 읽기 자료, 여성+독본을 통해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념의 변화를 탐구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시대를 달리하여 ‘타자화’되어 왔는지 그 내부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공적 교육의 영역에서 교과서 역할을 한 ‘독본’ 속에 담긴 여성 교육 이데올로기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격차를 확실히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근대계몽기 최초의 여성 독본인 장지연의 『녀즈독본』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가장 마지막 간행된 여성용 교과서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¹⁾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텍스트는 다음의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녀즈독본』은 근대계몽기 민간에서 간행한 사찬(私撰) 독본이고,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간행된 관찬(官撰) 독본이다. 두 텍스트 사이의 시차는 28년에 달한다. 둘째, 『녀즈독본』은 열전(列傳) 형태의 교과서로 본받을 만한 국내외 여성들의 전기를 이야기책의 형태로 축약하여 정돈한 것이고,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은 일상 및 상식, 교양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셋째, 『녀즈독본』은 민간에서 발행·판매된 만큼 배움에 뜻이 있는 여성들 또는 ‘여성을 교육하고자 하는 남성’²⁾에 의해 주로 가정 내

1) 현재까지 확인되는 일제강점기 국어과(조선어과) 여성용 교과서는 『여자고등조선어독본』(1925)과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1936) 뿐이다. 일제강점기 두 텍스트 가운데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물론 일관된 기조가 유지되는 근대 한국 여성 교육의 특성과 한계를 동시에 설명하고자 그 시간적 격차를 더 크게 갖는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에 주목하였다. 둘째, 『여자고등조선어독본』과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시차가 있으며, 이는 학생 수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조선인 교육인구수는 1925년 489,491명에서 1943년도 2,264,590명으로 4.6배 증가하였으며 중등학생 수는 1911년도 2,843명에서 1943년 110,388명으로 38.8배 증가하였다.”(정덕희, 「일제강점기 민족별 교육제정 규모와 배분 추이」, 『한국교육사학』 44(3), 한국교육사학회, 2022, 90-91쪽 참고)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성에게 읽힌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의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 보았다. 셋째,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이 발간된 시기는 일제가 전시 총동원 체제로 전환하기 전 제대로 된 근대식 교육의 끝자락인 동시에 2차 교육령기에 속하므로 1920년대 초반 만들어놓은 교육 이념과 목표에 여전히 부합하는 텍스트를 생산해야 하는 시기였다. 그런 의미에서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은 1920년대와 1930년대 여성 교육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유의미한 텍스트라 판단하였다.

2) 당시 독본은 교과서를 ‘독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언어능력을 획득하도록 하는 교수학습법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여성에 있어서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가정에서 개인교수를 통해 학습하는 단계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1910년대에도 여성의 취학률은 4%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구는 『백범일지』를 보면 약혼녀 여육을 위해 “女子讀本처럼 冊子를 草하여 가지고 紙筆墨까지 準備하여 가지고 가서 未婚妻를 敎授”했다는 대목이 나온다.(김구, 도진순 교감, 『정본 백범일지』, 돌베개, 2016,

또는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은 현재의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정식 조선어과 교재로 활용되었다. 한편 두 책은 모두 여성(만)의 교육을 위해 간행되었다는 특이점, 국한문 혼용체로 쓰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근대계몽기-사찬(私撰) 『녀즈독본』과 일제강점기-관찬(官撰)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의 비교를 통해 사회가 여성에 부여한 역할과 이데올로기의 변모양상을 살펴보겠다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두 텍스트의 차이점과 공통점에서 나아가 ‘비교’ 연구의 측면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확보해야만 한다. 먼저 왜 근대계몽기 텍스트는 ‘사찬’이고, 일제강점기 텍스트는 ‘관찬’을 다루는가, 그것이 비교의 대상으로 적절할 수 있는가 하는 합리적 의문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 각각 ‘관찬’ 텍스트를 비교하는 편이 훨씬 더 교과서에 담긴 교육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의문이 본 연구와 근대 여성 교육의 중요한 맥을 동시에 짚는 것이다. 근대계몽기 학부(學部)에서는 여성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학교 교육의 주된 대상은 동량지재(棟梁之材)로 상정된 남학생이었다.”³⁾ 공적 교육의 영역과 대상에 여성은 포함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여성 교육은 본질적으로 민간의 영역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1905년부터 1910년 사이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등장한 사찬 독본과 잡지의 활발한 출판 상황은 그렇게 여성이 공적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한계를 잘 보여준다.⁴⁾ 반면 일제강점기 여성 독본의 존재는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교육이 드디어 공적 영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이것이 여성 교육의 진보를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증을 남긴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교육받는 피식민주체-여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여전한 교육적 한계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지연의 『녀즈독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⁵⁾ 운영실에 의해

261쪽) 1908년 정식으로 발간된 장지연의 『녀즈독본』보다도 이전인 1902년의 일이다. 1921년에 이돈화는 가정과 자손의 장래를 위해 『보통학교 조선어독본』1권을 사서 매일 한 과씩 부인을 가르치면 몇 년 후에는 그 가정에 지식 있는 부인이 하나 생기는 것이라 말하며, 독본을 이용한 ‘남편의 여성교육’을 제안하기도 했다.(白頭山人, 『社會現象觀』, 나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개벽> 제10호, 1921.4, 51-52쪽.)

3) 김민재, 「근대계몽기 여학생용 초등 수신서의 특징과 한계 연구」, 『초등도덕교육』 43,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3, 31쪽.

4) 당시 간행되었던 여성독본과 여성잡지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번호	발행인	도서명	출판사	발행 연도	분류
1	유일선	『가정잡지』	가정잡지사	1906	잡지
2	신채호	『가정잡지』	가정잡지사	1907	잡지
3	장지연	『여자독본』	광학서포	1908	독본
4	최찬식	『자선부인회잡지』	자선부인회	1908	잡지
5	이원금	『초등여학독본』	보문사	1908	독본
6	강화석	『부유독습』	황성신문사	1908	독본
7	윤치호	『여자기념』	여자교육회	1908	잡지
8	노병희	『여자소학수신서』	박문서관	1909	독본

5) 이를 발표 시기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강옥, 「장지연의 의식변화와 서사문학의 전개(上) - 『애국부인전』·『녀자독본』·『일사유사(逸士遺事)』, 『韓國學報』 16(3), 일지사, 1990; 이강옥, 「장지연의 의식변화와 서사문학의 전개(下) - 『애국부인전』·『녀자독본』·『일사유사(逸士遺事)』, 『韓國學報』 16(4), 일지사, 1990; 박홍식, 「삶의 질 향상과 유교문화 - 20세기 초 한국 유교 지식인(장지연)의 여성관 변화를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한국유교학회, 2008; 홍인숙, 「근대계몽기 개신 유학자들의 성 담론과 그 의미: 개가론/열녀담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회』 27, 동양한문학회, 2008; 문혜윤, 「근대계몽기 여성 교과서의 열녀전(列女傳), 그리고 애국부인들 - 장지연의 『여자독본』을 중심으로」, 『泮橋語文研究』 35, 반교어문화회 2013; 정영진,

잘 정리되었듯 근대계몽기 '여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근대계몽기 여성론이 여성-가족-국가의 3항 관계 속에 긴박되어 있었고, 봉건적 유교 질서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전통적 여성상을 활발히 재생산하는 와중에 근대의 새로운 여성론은 가부장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용되었음을 이미 규명하였다. 그러나 『녀자독본』이 장지연 개인의 저작이기에 대체로 그의 여성관, 성 담론, 의식변화 등 저자의 사상을 설명하는데 연구의 경향이 치우쳐 있고, 근대계몽기의 특수한 시대적 의의를 설명하는 대상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 대상 읽기 자료들의 '단절'은 물론 그 '연속'적 지점 또한 함께 살피고 의미화하는 데 목적이 있기에 일제강점기 텍스트와의 비교를 통해 이 텍스트가 갖는 의미를 새롭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2022년 송숙정에 의해 이루어진 「일제강점기 중등 교육 여자용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 담론에 관한 고찰」이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연구로 참고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식민지 교육이 “규율권력으로서의 제도 교육과 국가주의의 결합으로 가부장제적 질서의 체화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⁶⁾되었음을 강조하고 있고, 당시 중등 교육 여자용 교과서는 대부분 일본 여자용 교과서에서 인용하였기 때문에 당시 근대교육의 피교육자인 조선 여성을 위한 담론인 동시에 일본 여성의 담론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에 대한 내용적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에 또한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경향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의문은 다음과 같다.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 여성 교육은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가?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측면에서인가. 교과서 간행 주체가 신학문을 수용한 조선의 남성 필진이었을 때와 조선총독부 학무국일 때의 차이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실제 당대 교과서를 비교해 보았을 때 발간 '주체'에 의한 차이는 명백한가? 이 두 시기의 텍스트 비교를 통해 공통된 여성 억압의 역사를 재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측면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만약 “실제로 식민지기 여성 교육에 전통적 여성상이 재현되고 있다면 그 배경과 재현 전략이, 그것이 아니라면 전통적 여성상이 어떤 지점에서 단절되고, 어떤 지점에서 연속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낼 필요”⁷⁾가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이 글에서는 여성 담론 및 성역할의 양상, 여성 훈육의 역할모델, 가족주의를 포함한 애국 담론을 중심으로 두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겠다.

『국권상실기(1905-1910) 여성의 국민화와 남녀동권 인식 - 여자용 교과서 『여자독본』과 여성가사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3(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5; 이정민, 「장지연의 『여자독본』, 그 성격과 지향: 새로운 여성상의 제시」, 『韓國思想史學』 63, 한국사상사학회, 2019; 윤영실, 「1910년 전후 여성서사의 '비혼녀'와 '미친 여자들' - 장지연과 이인식의 여성-국민담론과 식민화 이후의 변화들」, 『사이(SAI)』,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0; 김정남, 「장지연의 『녀자독본』, 『일사유사(逸事遺事)』를 통해 본 근대 지식과 여성 인물 발굴의 의미」, 『語文論集』 85, 중앙어문학회, 2021. 박수빈, 「근대계몽기 교과서를 통해 본 장지연의 '근대/민족'관(觀)과 여성교육」, 『돈암어문학』 45, 돈암어문학회, 2024.

6) 송숙정, 「일제강점기 중등교육 여자용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 담론에 관한 고찰」, 『비교일본학』 54,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회, 2002, 242쪽.

7) 이희경,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 여성교육의 성격 : 2차 교육령과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1(1), 한국교육사학회, 2006, 153쪽.

II. 근대계몽기 여성 교육의 구국 이데올로기 : 희생하고 헌신하는 조선 여성

『녀즈독본(女子讀本)』은 ‘광학서포’에서 1908년 4월 5일에 발행되었다. 여성의 계몽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 열전(列傳) 형식의 교과서로 상권에서는 한국의 여성, 하권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여성에 대해 다룬다. 이 책의 저자는 <황성신문(皇城新聞)>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으로 유명한 장지연으로, 그는 근대계몽기 다수의 학부 및 민간 교과서 제작에 관여한 근대교육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녀즈독본(女子讀本)』의 상권은 총 64과, 하권은 56과로 총 120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독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였을 뿐 아니라 책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또한 여성이다. 서문은 없으나 상권의 제1장 총론에 이 책의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 있다. 장지연은 여기에서 “너즈는 나라 백성(百姓)된 자의 어머니 될 사름이라 너즈의 교육(敎育)이 발달(發達)된 후에 그 즈너로 하여곰 착흔 사름을 일울지라 그런고로 너즈를 그르침이 곧 가당교육을 발달하야 국민(國民)의 지식(智識)을 인도(引導)하느 모범(模範)이 되느니라”⁸⁾고 썼다. 즉, 이 책의 편찬 의도는 여성을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곧 가정교육을 발달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지식을 인도하므로, ‘어머니’로서의 여성을 잘 교육하기 위함이다.

상권에서 소개되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김유신 모친’이다. 이 여인의 덕목은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르침을 엄(嚴)히 하”(상-4)여 동류(同類), 창녀(娼女)와 어울리지 못하게 한 점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의 목을 벤 김유신 이야기를 소개하면서도 그 이야기의 말미에 “이거슨 그 모친의 어짐으로써 큰 사름이 되니라”(상-7)라고 어머니의 가르침에 의미를 부여한다. 두 번째로 소개된 인물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문헌 정여창이 친구들과의 방탕한 생활을 그만두고, 일대 명현(名賢)이 된 것은 그 어머니의 꾸짖음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이 오성(李鰲城)의 모친 최부인(崔夫人), 이율곡(李栗谷)의 모친 신부인(申夫人) 또한 훌륭한 가정교육을 행한 ‘직덕’(상-12)이 강조된다. 이런 어머니에게 가정교육을 받아 아들이 일국의 명현이 되었다는 식의 서술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때 서술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미친 영향력’이다. “홍공이 밋양 굴으되 모친의 이 밋암은 가히 신명(神明)에 통홀지라 하더라”(상-15)와 같은 서술로,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부녀자의 덕행을 기록한 부덕(婦德) 장에서는 신라 소나(素那)의 처, 고구려 온달(溫達)의 처, 평강공주가 등장한다. 이중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평강공주 이야기인데, 특히 강조된 대목은 궁에서 가지고 나온 패물로 완전한 가산(家産)을 이루고 온달을 장수로 만드는 부분으로 여성의 희생과 헌신이 드러난 부분이다. 그 밖에도 뇌물을 받지 않은 유응규의 처, 너그러운 인열왕후, 목숨 바쳐 의를 지키라는 말로 남편을 부끄럽게 한 윤

8) 장지연, 『녀즈독본』, 광학서포, 1908, 1-2쪽.

앞으로 이 책의 인용시 각주 수를 줄이기 위해 본문의 괄호 안에 인용면을 표기하고, 그 형식은 (권-쪽)으로 하겠다. 또한 원문 그대로를 인용하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 띄어쓰기를 적용하겠다.

부인, 현명한 리부인 등이 차례로 소개된다. 그중 27과 '권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인물과 상황이 상세히 묘사되는 등 이 책에서 특별히 다루어지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어느 공주(公主)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명부(命婦 : 봉작은 받은 부인)들이 화려하게 꾸미고 모인 가운데 한 노부인이 갈포(葛布)와 삼베옷을 입고 등장한다. 그 행색의 초라함을 모두 무시하여 “웃지 아니호는자 | 업”(상-48)었다. 그때 그들을 향해 부인이 이런 말을 한다. “우리집 대감(大監)은 약방(藥房) 도제도(都提調)로 새벽에 예궐호섯고 맛으회는 리조판서로 정스자리에 나아갔고 둘째 으회는 승지로 좌직호엿스니 로신(老身)이 급히 가여야 저녁밥을 굿초아 보내겟다”(상-49) 이에 좌중이 대경하였다는 것이다. 진정 여성을 빛내는 일은 사치하여 외양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남성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상권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 여성의 미덕은 가족에 대한 헌신과 아들에 대한 엄한 가르침에 있고 조선 여성의 과업은 집안의 남성을 각성시켜 가명(家名)을 높이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권은 세계의 본받을 만한 여성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5과에 소개되는 리기(李寄)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데, 산이 많은 한 지역에 길이가 무려 팔장(八丈 : 약 24미터), 넓이가 일장(一丈 : 약 3미터)에 이르는 뱀이 살며 사람들을 해치는데 무당이 말하기를 뱀이 십여세 된 어린 여자아이를 산 채로 먹기를 원한다고 전한다. 매년 어린 여자아이를 바친 지 10년이 된 어느 날 리탄(李誕)의 딸 ‘괴’가 자신이 직접 재물이 되기를 청하고 나선다. 장신구와 물건을 팔아 칼과 개를 산 괴는 먼저 떡을 만들어 뱀을 현혹한 다음 떡을 먹는 사이 개와 칼을 이용해 뱀을 죽이는 데 성공한다. 월왕(越王)이 이를 듣고 괴를 후(后)로 삼는다. ‘괴’의 이야기는 지략을 이용하여 자신을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구해내는 영웅담으로 정숙한 부인, 효심 깊은 딸, 엄격하고 현명한 어머니 등 조선의 여성 인물들의 이야기에 담긴 메시지와는 차별점을 갖는다. 7과에 소개되는 목란 또한 전설의 영웅 ‘화목란’으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대신 남장(男裝)하고 전장에 나갔던 용맹한 인물로 묘사된다.

『녀중독본』에 소개되는 여성 인물은 그 자체로 서술자의 의도와 시각이 반영된 대상이라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해석이 가미되는 부분은 주로 ‘상동’으로 처리하는 동일 인물에 대한 부연 설명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지연은 각과의 제목으로 소개하는 인물의 이름을 내세우되, 그 분량이 길어지면 과를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그때 두 번째, 세 번째 과의 이름은 모두 ‘상동’(上同)⁹⁾으로 처리했다. 그는 하권의 18과 ‘양향(楊香)과 동팔나(童八娜)’에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 호랑이와 맞서 싸운 두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소개한 뒤 이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기 위하여 19과에 ‘상동’으로 다음의 내용을 썼다.

더 두 사름이 다 나히 십여세에 지나지 못호지라 범을 항복식힐 능력(能力)과 제어할 기계가 업스디 일쥔에 밍슈(猛獸)를 맞났스니 손이 썰니고 다리가 흔들니지 아니호는 자 | 업거늘 대개 경각(頃刻) 스이에 오직 부모가 잇고 밍슈가 잇슴을 아지 못호며 또 몸의 싱스를 니진고

9) ‘상동’으로 이름 붙은 과(課)들은 대개 소개할 내용이 다른 인물들보다 많은 경우 각과의 내용을 비슷한 분량으로 나누기 위하여 존재하지만(바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서론격으로 존재하는 내용을 첫 과에 서술하고, 그 뒤에 본격적으로 인물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특별히 좀 더 서술자가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기술하기 위해 부러 만든 경우도 있어, 본고에서는 그 부분들에 주목하였다.

로 혼갓 쳐서 두려워 흠이 업는 거시라¹⁰⁾

장지연은 두 소녀가 부모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사를 잊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없는 맹수를 이길 수 있었다고 그 효심을 강조했다. 이렇듯 하권에 실린 동양 여성 인물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공통적으로 공동체(나라)를 위한 희생정신과 충성심, 부모에 대한 효심이 담겨 있다. 이렇게 중국의 여성들로 채워지던 하권은 26과부터 법국(法國, 프랑스) 여성인 사로탈(沙魯脫)¹¹⁾을 시작으로 서양 여성 인물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한다. 사로탈은 프랑스대혁명 당시 자코뱅의 지도자이자 저널리스트였던 '장 폴 마라'¹²⁾를 죽인 인물이다. 장지연은 이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기술하였으며 “약혼 여자가 능히 몸을 밋쳐 국사(國事)를 다하니 죽어도 눈을 감겠다하더라”(하-70)와 같은 표현으로 특히 그녀가 사망 당시 보인 용감하고 당당한 태도를 강조하였다. 바로 다음 소개된 인물 마리타(馬利他) 또한 마찬가지다. 이탈리아 혁명 당시 해전에 직접 참여한 여성 병사 마리타는 전장에서 아들을 낳고 기른 강인한 어머니이기도 하다. 장지연은 가리발디(책에서는 가리타)의 말을 빌려 “마리타의 용맹과 굳셈”(하-77)을 강조했다. 로이미세르(路易美世兒)에 대해 서술할 때에도 강조된 점은 “스스로 병복(兵服)을 입고 총을 메며 칼을 찌고 맞춤내 아인을 막아”(하-81)는 용맹한 모습이다. 여안(如安), 잔 다르크에 대해서는 특히 나라를 사랑하는 대의를 알고 나라 구원하기를 원하던 영웅적 인물로 의미화하고 있다. 남장(男裝)한 그의 외양에 대해서도 “엄연(儼然)이 신인(神人) 갓하여 감히 힐문(詰問)하느자 | 업느니라”(하-88)고 그 능력을 특별히 강조하여 묘사하였다.

『녀중독본』에 등장한 여성 인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책의 메시지는 '나를 돌보지 않는 희생이 여성의 미덕'이라는 말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아들을 훌륭히 키워내는 엄한 어머니, 남편을 내조하고 집안의 남자들을 잘 뒷받침하는 아내, 아버지를 대신해 전장에 나가는 딸,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짐승과 싸우는 여자아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여성 전사. 조선과 동양의 여성은 그 활동과 기여의 범위가 주로 가정 및 소규모 공동체로 한정되고, 서양의 여성은 국가로 확장되었다는 차이가 있으나 그들은 모두 가족과 국가를 위한 '희생자'이거나 '구원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근대계몽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민족적·애국적' 사명을 부여받게 된 한국 여성들의 처지와 상황을 잘 보여준다.

Ⅲ. 일제강점기 여성 교육의 양태현모 이데올로기 : 생활을 미화하는 일본 여성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은 1936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행된 '여자고등보통학교용' 조

10) 장지연, 앞의 책, 48쪽.

11) 마리 안 샤를로트 코르테 다르몽(Marie-Anne Charlotte de Corday d'Armont, 1768년 7월 27일~1793년 7월 17일)

12) 장폴 마라(Jean-Paul Marat, 1743년 5월 24일~1793년 7월 13일)는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인으로 프랑스 혁명에서 급진적인 저널리스트이자 정치가로 활약한 인물. 『녀중독본』에서는 “법왕(法王) 로이(路易)가 국인(國人)에게 죽인바 | 되고 썩에 또 호가(豪家) 마랍(馬拉)이 잇서 전국(全國)의 대권(大權)을 잡고 그 빅성을 포학(暴虐)하야 상(傷)함이 한덩업더라”(하-64)라고 설명된다.

선어과의 교과서다. 간단하고 편리한 한문을 알리기 위해 각 권에 한문 수과(數課)를 편입하고 한문은 단문부터 문장의 순서로 하고 있다. 현토(懸吐) 또한 저학년에는 자세히 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간략히 한다. 본문 위에는 따로 별도의 칸을 마련하여 해당 면에 등장한 단어의 뜻을 풀어 설명¹³⁾하고, 외국어의 경우에는 따로 단어의 오른쪽에 줄을 그어 표시하였다.¹⁴⁾ 진보된 교과서로서의 형태를 온전히 갖추고 있고 설명문뿐 아니라 시, 악보, 사진 등이 실린 것도 구성상 특징적인 부분이다.

1권의 1과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 학도의 일인칭 시점에서 쓰였으며, '입학식'을 시작으로 그의 경험과 감상이 시간 순으로 기술되었다. 고등보통학교의 학도가 되어 기쁘고 긴장되는 마음을 자세히 묘사하여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여, “品行을 양전히 가지며 德性을 길러서, 完全한 人格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貴重한 일”¹⁵⁾이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전반적으로 일기, 서간문, 수필 등 주변을 관찰하거나 일상에서 기억할 만한 주제를 바탕으로 한 일인칭 시점의 글들이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문장으로 쓰여 있다. 예를 들면 5과 녹수(綠樹)는, 대상을 바라보는 감상과 그 묘사에 중점을 두어 “가지마다 잎사귀마다, 우로는 물과 같은 푸른 하늘에 또렷 또렷이 비치고, 따에는 수한 자지빛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벚나무는 잎이 활짝 피었으나, 아즉도 담상담상, 쇠잔한 꽃을 잎사귀 사이에 감추어, 간간히 나비가 나는 듯이 팔랑팔랑 떨어져 나린다.”(1-23)와 같은 식으로 의성어와 의태어를 빈번히 사용하고 시적(詩的)인 묘사법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12과 ‘불국사에서’ 또한 표현의 섬세함이 돋보이는데 “물신물신한 밀가루 반죽이 아니고, 육중하고 단단한 돌을 가지고야, 저다지도 곱고, 어엿브고, 의젓하고, 아름답고, 빼어나고, 공교롭게, 잔손질을 할 수 있스랴”(1-49)와 같은 문장이 그것이다.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14과 전원의 여름, 계절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22과 등 대상에 대한 상세한 묘사에 집중하며 감상적인 수필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체적 통일성을 확보한다.

1권의 88쪽 23과에 이르러 소개된 ‘부도삼종(婦道三從)의 신의(新義)’는, 유일하게 이 책에서 일종의 정치적·선동적 메시지를 드러내는 글로써 주목할 만하다. “明治 三十七八年 戰役に 우리나라가 大勝利를 얻게 되어, 갑자기 우리나라의 名聲이 世界에 드날렸다.”(1-88)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글을 통해 이 책에서 술하게 사용된 ‘우리’란 말은 곧 조선을 포함한 일본임이 명확해진다. 이 글의 목적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일본이 어떻게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칠 수 있었는지, 일본의 군인들이 특별히 강한 이유는 무엇인

13) 책의 서언에 “難字, 句, 固有名詞, 引用語句 中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한 것은, 上欄에 摘出하여 略解하다.”라고 적혀있다.

14) 외국어 단어의 경우에도 위의 공란에 다시 한 번 한글과 영문 표기를 병기하고 때에 따라 그 뜻을 풀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1권 48쪽의 ‘빨코니’와 ‘아-취’, 77쪽의 ‘빠나나’, 2권의 71쪽의 ‘멜로디’, 84쪽의 ‘빠스’, 102쪽의 ‘왓취’, ‘앵글로색슨’, ‘갈데아’, ‘빠벨’, 102쪽의 ‘아합’, ‘빠빌로니아’, 104쪽의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알프레드’, ‘에스키모’, ‘아메리카’, 106쪽의 ‘뉴-렘베루히’, ‘피-터-헨라인’, ‘차-르스쿠-신’, ‘제네바’, 107쪽의 ‘알프스’, 108쪽의 ‘스강크’, ‘까스’, 112쪽의 ‘에네르기’, 113쪽의 ‘코레스테린’, 114쪽의 ‘쁘-트’, 115쪽의 ‘비타민’, 132쪽의 ‘빠-토-벤’, 134쪽의 ‘피아노’, 135쪽의 ‘라인하’, ‘본(Bonn)’, ‘위-(Wein)’ 등 주로 고유명사, 지명 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5) 조선총독부,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中等教育女子朝鮮語讀本)』권1,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36, 5쪽. 이 책은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에 인용시 편의와 원활한 독해를 위하여 인용자가 현대 띄어쓰기를 적용하겠다. 또한 각주의 수를 줄이기 위해 본문의 괄호 안에 인용문을 표기하고, 그 형식은 (권-쪽)으로 하겠다.

지를 분석하여 국민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이유를 일본의 '가정교육'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군)인이 특별히 애국심이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전 세계의 학자와 교육가들이 모여 일본 '부인'의 말을 청해 듣는다. 그 자리에서 일본 부인이 "日本家庭에서는, 딸이나 主婦나 어머니나 다 犠牲的이올시다. (중략) 집안의 快樂을 爲하야서는 自身の 快樂을 犠牲하는"(1-90) 것이 일본 여성의 정신이라고 말한다. 이에 한 외국 부인이 "어려서 父母를 좇고, 出嫁하야 家長을 좇고, 늙어서는 子息을 좇는다니, 그러면 日本婦人은 一平生 머리를 들어 볼 때가 업지 안켓"(1-91)느냐고 반문한다. 이에 일본 부인이 어성을 높여 이 '삼종(三從)의 의'야말로 일본 부인에게 있어 세 가지의 승리는 뜻하는 것이다, 삼종의 의를 지키는 여자야말로 세계 중에 가장 머리를 들 만한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답한다. 우리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영국 사람들도 일본 군대가 강한 까닭을 알았다고 기뻐하고, 부인도 말한 보람이 있다며 만족했다는 이야기다. 여성에게 '삼종지도(三從之道)'를 가르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애국심 강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가정과 국가 내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중국 고대의 『예기(禮記)』의 가르침이 일제강점기에도 전제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33과 '裁縫'의 내용이다.

바느질하는 女子는, 누구나 이와 같은 깃름(무언가가 손끝에서 완성되는 즐거움 : 인용자)을 맛보리라 생각합니다. **이 깃름은 女子들만이 맛볼 수 있는 特權입니다.** (중략) 그 옷을 입는 사람의 品格과 活動에 影響을 주는 것입닛가. 그러면 옷을 짓는 우리 女子들에게도, 큰 責任이 업슬 수 업습니다. (중략) 이와 같치 裁縫이 女子의 重要な 德을 修養하게 하는 것이라면, 터진 곳 한군데를 깨매는 것이라도, 그것이 곳 제 마음의 터진 데를 깨매는 힘이 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¹⁶⁾ (강조는 인용자)

여성의 바느질에는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이 글은 당대 사회가 '진보발달'되면서 재봉이 여성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여성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재봉이, 나날이 분망해지고 역할이 다양해지는 여성들에게 뒷전으로 놓이는 것이 우려되기에 어떻게 하면 시간과 노력이 덜 들면서도 자신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라고 말한다.

2권의 구성 또한 1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1과는 '人生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익숙한 자연의 찬미를 인간의 인생 가운데 '청춘'과 연결시켜 서술한다. 묘사가 빈번해지고 문장의 길이도 한층 더 길어진 것이 특징이다. 2과의 '梅花', 3과의 '제비' 또한 봄과 함께 나타나는 존재들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11과의 '여름철과 나의 추억'이나 20과의 '가을', 25과의 '初雪'은 계절의 변화와 자연, 인생의 감상을 연결한 일관된 방식의 글쓰기다. 4과 '卒業歸郷한 동모에게'는 편지글로, 학교를 졸업한 언니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女子로서의 할 일과, 家庭婦人으로서의 걸어갈 길도, 정말은 이제부터인즉, 그 方面에 대한 準備에 用心하심이 적지 안으리라고 믿습니다."¹⁷⁾라고 쓰고 있다. 5과는 이에 대한

16) 위의 책, 130-131쪽.

17) 조선총독부,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中等教育女子朝鮮語讀本)』 권2,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37, 19쪽. 이 책은 띄어쓰기가

답장인데 “先生님들의 時時로 訓戒하시고 指導하시는 말씀을, 잘 服從하고 實行함으로써, 女子로서의 훌륭한 人格을 이루며, 또는 將來 훌륭한 主婦가 될만한 資格을 이루는 것이, 第一 重要な 일이라고 생각합니다.”(2-25)는 문장으로 당시 여성에게 있어 교육의 결과란 곧 ‘훌륭한 주부’가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은 낭만적인 노랫말과 시어, 일상적인 감상을 다룬 수필, 자연물에 대한 찬미, 기품 있는 문장과 표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역사적·사회적 진공상태에 놓인 듯 보이는 이 책은 엄연히 일제강점기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된 책임에도 中等(閨中)에 갇힌 여성을 독자로 상정한 듯한 인상을 남긴다. 그저 예쁜 말을 따라 읽고 쓰며, 생활을 ‘미화’하는 주부로 사는 것이 여자의 특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에 훌륭한 ‘주부’가 되기 위함이고, 여성은 평생 부모, 남편, 자식을 좇으며 사는 것이 미덕이라 가르치는 책. 여성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어떤 것도 알 필요 없이 그저 따르면 된다는 가르침은, 선봉에 서 민족을 위해 싸우라거나 집안의 남성을 각성시키고 엄히 가르치라는 근대계몽기의 여성 역할모델¹⁸⁾들과는 달리 ‘주체성’이 완전히 결여된 ‘수동적·종속적’ 여성상을 보여준다.

IV. 여성 훈육 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 : 애국(愛國)의 두 방법

두 책의 공통점은 여성에 ‘가족과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성이 주로 ‘어머니’와 ‘주부’의 역할에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는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나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보인다. 근대계몽기 여성에게 주어진 임무가 전통적 여성의 성 역할을 의미하는 ‘내조지공(內助之功)’에 ‘애국부인(愛國婦人)’의 역할까지 부여하는 일종의 ‘이중고(二重苦)’라 본다면¹⁹⁾, 일제강점기 여성은 철저히 활동의 범위가 제한된 존재, 마치 보기 좋은 ‘분재(bonsai)’와 같다. 집안을 깨끗이 소제하고 숨쉴 좋은 바느질로 예쁜 물건들을 만들고 낭만적인 문장을 외우고 쓰며 교양을 쌓는 여성. 노래를 부르고 시를 외우며 자연의 작은 변화에 감탄하고 감격하는 여성.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처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보면 이는 얼마나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가. ‘관상용(觀賞用)’이 되어버린 듯한 일제강점기 여성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가능성이나 역동성, 생동

전혀 되어있지 않기에 인용시 편의와 원활한 독해를 위하여 인용자가 현대 띄어쓰기를 적용하였다. 앞으로의 인용시에는 본문의 괄호 안에 페이지를 밝히는 것으로 하겠다.

- 18) 한편 이 책은 이상적인 여성상 및 여성 훈육의 역할모델로 총 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다. 1권 9과의 ‘선덕여왕’은 “性質이 寬大하시고 政事를 잘하실 뿐 아니라, 少時때부터 先見의 명이 만으셔서, 여러 가지 일을 미리 알아 마치셨다고 傳한다”(1-36)는 말로 현명함과 너그러운 성품이 강조되었다. 1권 26과 ‘효녀 지은’은 어린 딸 지은이 홀로 소경인 어머니를 봉양하며 온갖 고생을 하던 중 그 효심에 감탄한 화랑 효종랑(孝宗郎)과 진성여왕에게 베풀어 오백 석과 집 한 채를 하사받는다. 소문을 듣고 곡식을 훔치러 온 도적들에게 “당신들은 남이 들을가보야, 날더러 큰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지마는, 나는 곧하게 주무시는 어머니가 깨실가보야 당신들의 큰 소리를 저어하오”(1-107)라고 말하며 조용히 곡식을 다 가져가라고 한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강조된 이야기다. 마지막은 『삼국사기』 권48 열전 설씨조(薛氏條)에 전하는 가실과 설씨녀의 설화로 2권 21과에 「薛氏女의 貞節」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이들은 각각 지혜, 효심, 정절을 상징한다.

- 19) 근대계몽기 여성에게 주어진 ‘내조지공’과 ‘애국부인’의 역할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박수빈의 「근대계몽기 교과서를 통해 본 장지연의 ‘근대/민족’관(觀)과 여성교육」(『돈암어문학』 45, 돈암어문학회, 2024)을 참고할 것.

값을 찾아볼 수 없다. 적어도 여성 교육 담론의 측면에서, 일제의 근대식 공교육의 내용이란 근대계몽기에 비해 전혀 진보되지 않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장지연의 『너즈독본』에는 나라를 지키는 충성스럽고 용맹한 여성 인물이 다수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을 던져 부모를 구하고, 마을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 결정적으로 장지연이 소개하고 묘사한 여성 인물들에게는 '주체성'이 있다. "감히 헝홀자 업스매 빅가지 계교로 결단치 못흐는지라 승의 썰 관(灌)이 나히 바야흐로 열세살인디 의연(毅然)히 흥흥기를 청하야"(하-23)와 같은 문장을 보자. 마을이나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이를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용감하게 나서는 인물됨이 강조되고 있다. 하권 11과에 소개된 '부인성(夫人城)'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성을 쌓고 여병(女兵)이 직접 성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장지연은 "진병이 사름의게 고흐야 곶으디 양양에 굶은 성이 업스되 오직 부인성(夫人城)이 가히 두렵다 흐"(하-27)였다고 쓰기도 했다. 그 밖에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직접 북을 치고 상소를 올린 부인, 남편이 죽자 대신 사람들을 거느린 인물 등 주체적으로 대의를 위해 행동하거나 사람들을 지휘하는 여성 인물들이 다수 등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너즈독본』은 주체성과 용맹함을 바탕으로 한 애국정신을 교육하고자 한 텍스트로 의미화할 수 있다. 이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여성을 동지로 호명한 근대계몽기의 역사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반면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은 제2차 조선교육령기(1922~1937)에 속한다. 1922년 2월 17일 제정한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정(조선총독부령 제14호)' 제8조의 2항에 나타난 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선량한 풍속을 존중하고, 생도의 덕성을 함양하며, 순량한 인격을 도야하고, 특히 정숙하게 하고 동정심이 많으며, 근검을 존중하는 지조를 두텁게 하고, 나아가 동포집단의 미풍을 기르 고자 하여야 하며, 어느 학과목에서도 항상 깊이 이에 유의하게 하여야 한다.

‘순량정숙(淳良貞淑)’, ‘온정자애(溫情慈愛)’와 같은 표현을 여성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자 덕성으로 강조하는 일본 여성 교육의 특징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제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된 1922년은 이른바 ‘문화정치’의 시대로 3.1 운동 이후 조선인들의 기존 교육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해진 시기다. 제1차 교육령기(1911~1922)와는 다르게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재조선 일본 여성 교육과의 차별을 없앴고, 교과목의 내용과 교수방침을 바탕으로 보면 규정상 조선어가 필수 과목인가, 가설과목인가 차이를 제외하면 글자 하나 차이도 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²⁰⁾ 이 시기 조선 여성에 대한 교육은 본질적으로 일본 여성 교육과 차이가 없었고, 교과서는 그 자체로 조선 여성을 철저하게 일본 여성으로 만들기 위한 ‘동화교육’ 담론의 상징물이었다.

일제강점기 학교는 일제의 동화와 차별 정책 속에서 조선인의 저항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장치이자, 핵심 기구로 기능했다. 근대계몽기 여성 교육사상을 ‘구국 이데올

20) 이회경, 앞의 글, 157-158쪽 참고.

로기'라 이름 붙인다면 일제강점기 여성 교육사상은 '양치현모 이데올로기'²¹⁾라 칭할 수 있는데, "여자로서의 천분(天分)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주부로서 가사일을 해야 하고, 동시에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이 천분을 다하는 것은 여자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이는 여자의 의무이다."²²⁾라 말하는 『여자고등보통학교수신서』의 문장은 이 시기 여성 교육의 핵심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여성으로서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 일이나 부여받은 역할을 타고난 재능이나 복(福)이라고 교육하는 것인데, 『중등교육여자조선어독본』 속 여성이 일종의 사회적·역사적 진공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또한 교육의 목표 자체가 '가정 내의 여성'을 훌륭히 만드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여성들이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성과 자유에 대한 열렬한 긍정이 사회적 양심이나 정의의 형태로 분출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우려가 전제되어 있"²³⁾으며, 이를 통해 피식민 주체인 조선인 여성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일종의 '무력함'을 학습하게 된다.

'문자'를 익힌다는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지식을 배운다는 의미다. 『녀중독본』을 비롯한 근대계몽기 민간의 독본들이 여성에게 글을 가르쳐 조선의 독립을 꾀하고, 조선의 아들들을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쓰였다면, 일제강점기 조선어 독본은 조선어 교육을 기초로 국어(일본어)를 비롯한 일본의 역사, 지리 등을 가르쳐 조선인을 완전한 일본인으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여성을 조선의 독립을 위한 '구국의 부인'으로 만들고자 한 교육 목표와 여성을 학교로 끌어들여 일본인과 조선인의 '동화를 위한 매개체'로 이용하려 한 일제의 교육목표는 결국 교과서 속 이상적인 여성상에서 결정적인 차이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교과서 속 여성 훈육 모델은 하나같이 너그럽고, 효심이 지극하고, 정절을 지키는 등 '성품'에 대한 서술만이 두드러졌을 뿐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가능성은 완전히 소거되어 버린 모습이었다.

조선 여성들을 일본식 '양치현모'로 만들겠다는 일제의 목표는 동시기 '실과여학교' 개교로 이어졌다. "賢母良妻養成코저 江景實科女學校 開校"라는 1936년 4월 24일자 <동아일보>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자에게 장래 충실한 주부양성(主婦養成)과 일상생활(日常生活)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하는 실과여학교"에 기대가 크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다. 1930년대 후반 신문지상에서는 "나는 살림엔 서툴러서" 하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하는

21) 일본의 여성교육 및 여성관, 양치현모론의 시작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쿠가와 시대로부터 메이지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맥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일본에서 '여성다움'의 덕목이란 일관되게 정이 깊고, 부드러우며 애교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의 요소가 포함되었다.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규범으로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라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여성이 받은 교육은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하는 데에 무게 중심이 있었다." 메이지유신으로 변화를 겪은 일본에서는 '양치현모'론이 대두되며 선천적으로 올바른 도덕관을 가진 아이를 낳아 기르고(태교의 중요성 강조), 가정에서 남편이 행복과 안락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보편타당한 여성의 모습이라는 이론이 등장했다. 특히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양치현모론은 "더 이상 이에(家)라는 공동체 운영의 공동책임자로서 여성을 파악하지 않는 대신, 결혼과 출산을 통해 발생하는 직분으로만, 남편과 자식을 기본 단위로 한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규정"했다.

이재복, 『메이지 일본의 '양치현모'론 탄생의 맥락 - 도쿠가와시대 여성 담론으로부터의 연속과 단절』, 『개념과 소통』 22,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8 참고.

22) 조선총독부, 『第三課 自分を知れ』, 『여자고등보통학교수신서』 권2,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25, 10-11쪽. 번역은 인용자.

23) 김혜련, 『일제강점기 조선어과 교과서와 조선인』, 역락, 2011, 219쪽 참고.

조선어과 교과서가 고급지식의 습득이나 인문사회학적 다양한 진리 탐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체능 교육을 통한 '취미' 계발이나 '정서'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분”²⁴⁾들이 많아 문제라는 당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점 또한 쉽게 발견된다. 그렇게 오랜 시간 규중에 갇혀있었던 조선 여성의 세계는 근대계몽기 잠시 사회진출의 가능성을 엿보았으나 일제강점기 다시금 가정 내부로 침잠하게 되었다.

V. 결론

두 텍스트 사이에 30년 가까운 시차가 확보되었더라도, 또한 수치상으로 여성이 비교적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와 환경이 조성되었더라도 이것이 ‘진보’된 교육인가 여부는 질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다. 일제강점기 교과서에서는 오히려 여성 담론적 측면에서는 근대계몽기에 비해 퇴행한 측면이 발견되는데, 이는 또한 지지부진했던 근대 여성 교육의 면모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 교육은 결국 현대 여성에 대한 교육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여성의 덕목이란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형성·변형되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어머니’와 ‘애국 부인’으로 설정된 근대계몽기 지식인의 여성관은 과연 일제의 ‘양치현모’와 결합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근대계몽기와 일제강점기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두 시기의 ‘국가’는 엄연히 다른 것이었기에 ‘가족국가론’의 측면에서는 둘은 정교하게 나뉘볼 수 있다. ‘국가’의 개념을 설명하는 근대계몽기 교과서들을 살펴보면 휘문의숙에서 발행한 『고등소학독본』에서는 “一家는 個人家族의 集合인 所이오 一國은 全體家族의 集成인 者”²⁵⁾라며 국가를 가족의 집성체로 설명했다. 국민교육회 또한 마찬가지로 “國家는 個人의 聚集인 者오 家族의 大인 者”²⁶⁾라며 가족의 확대가 곧 국가라 말했다. 신해영의 『윤리학교과서』에서는 “特別히 我大韓帝國에 在하는 臣民이 國家에 對한 本務가 諸外國과 迥別한 바 | 有하니”²⁷⁾라고 썼다. 가족은 ‘소국체’라는 것이다. 근대계몽기 지식인들은 ‘인민’의 절대적 동등과 자유를 인정하고 그들의 의지와 결합으로 국가가 성립했다고 보는 국가계약론을 ‘인민’의 방종과 무질서를 야기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지식인들은 국가 주권이 ‘인민’의 의지와 계약으로 성립했다고 주장하는 ‘국가계약론’보다 국가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공동체의 확장 또는 집합체로 인식하게 하여 국가구성원들에게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족국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²⁸⁾

반면 당시 일본의 경우는 근세 가족이 지니고 있던 공적 성격이 사라지고, 가족이 사적 존재가 되어 독립성을 고양해 나갔다. 가내영역과 공공영역이 분리되어 각각이 여성과 남성의 책임 영역으로 관념화되면서 부친이 자녀 교육에서 물러나고 담당하던 교육 기능의 일부

24) 「화초를매만지는 마음을길르라」, <동아일보>, 1937년 10월 5일, 3쪽.

25) 휘문의숙편집부, 「第四課 愛國心」, 『고등소학독본』 권1, 휘문의숙인쇄부, 1906, 6-7쪽.

26) 국민교육회, 「第二十一 愛國心」, 『초등소학』 8, 국민교육회, 1907, 29쪽.

27) 신해영, 「第二章 國民의 本務」, 『윤리학교과서』, 보성관, 1908, 21쪽.

28)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20세기 전환기 동아시아 지식장과 근대한국학 탄생의 계보』, 소명출판, 2020, 141쪽 참고.

를 학교가 맡으며 가족-국가-학교라는 새로운 삼자관계가 만들어졌다. 이 가내영역과 공공 영역의 분리 이후 '양치현모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²⁹⁾ 결국 근대 국민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국민' 형성 시점에 조선과 일본은 정반대의 가족과 국가론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당대 여성 교육과 여성 담론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그로부터 오랜 기간 우리 여성 교육의 한계로도 단단히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29) 임경택, 「일본가족의 근대-일본의 근대국민국가 형성과 가족」, 『日本思想』 9,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5, 138-140쪽 참고.